

참 고 자 료

한의학표준임상진료지침 연계 한의학진료수행평가(CPX) 시나리오개발 가이드

2025. 9.

한국한의학진흥원

본 양식은 한국한의학진흥원 한의학표준임상진료지침 개발사업단(HI16C0275)에서 2021년 “한의학표준 임상진료지침 연계 교육도구 개발 관리 연구(부산대학교)”의 최종성과물을 재편집한 자료임을 알려드립니다.

[표준화환자 시나리오 설명]

- 시나리오에서는 의학용어 및 한의학용어를 그대로 사용하지 않아야 한다.
 - 표준화환자가 시나리오를 통해 의학용어에 익숙해지는 것을 피해야 실제 환자의 특성을 잘 훈련받을 수 있다.
- 인적사항
 - 진료를 받으러 온 환자의 일반적 특성을 기록한다.
 - 성별, 나이, 이름, 키, 몸무게, 직업, 경제적 수준, 학력 수준, (진료)장소
 - 성별, 나이, 키, 몸무게 등은 사례의 진단 및 변증과 특별한 관계가 없을 경우 비워두고 배정받은 표준화환자가 자신의 실제 수치를 기입하도록 할 수 있다.
 - 대표적인 증례를 상기하여 기입할 경우, 이 사례를 배정받은 표준화환자가 사례의 진단 및 변증과 적절한지를 확인해야 한다.
 - 나이는 표준화환자의 실제 나이±2세가 적정하지만, 불가피할 경우 배정받은 사례의 시나리오에 맞도록 암기한다.
 - 이름은 성별에 맞는 평범한 이름으로 작명한다.
 - 특정 질병이나 증상이 연상되는 이름은 배제한다.
 - 기억하기 쉬운 이름은 좋으나, 우스꽝스러운 이름은 진료 상황의 실제감을 떨어뜨릴 수 있으므로 주의한다.
 - 경제적 수준, 학력 수준, 직업 등은 병력청취 중 사회력과 인과관계가 있을 경우 주의하여 기록한다.
 - 장소는 시나리오에서 설정된 진료를 받는 장소를 기술한다.
 - 예시: 외래, 병상, 응급실
- 사례 요약
 - 꼭 알아야 할 핵심사항을 간략히 요약하여 1문단 정도로 기술한다.
 - 예시: 환자의 특징적인 증상과 중요 병력, 환자가 병원에 오게 된 이유 등
 - ‘나’를 주어로 사용하여 표준화환자가 대본에 몰입할 수 있도록 한다.
- 성격 및 감정 상태
 - 환자 내면의 마음 상태를 기술한다.
 - 환자의 마음 상태가 왜 현재와 같이 되었는지도 기술할 수 있다.
 - 환자의 평소 성격, 현재의 기분, 주소에 대한 환자의 생각, 특별한 걱정거리, 의사에게 무엇을 기대하는지 등을 기술한다.
 - 만성질환이나 정서적, 사회적, 가족적인 문제가 있는 사례의 경우 특히 중요하다.

- 필요할 경우, 학생과 어떤 형식으로 의사소통하는지도 명시할 수 있다.
 - 예시: 말이 많은 편, 조용하게 말수가 적은 편, 다정다감, 협조적
- 필요할 경우, 진료가 진행됨에 따라 감정이나 생각의 변화가 있는 것을 기술할 수 있다.

○ 표정과 자세 및 복장

- 환자의 외면을 구체적인 용어로 자세히 묘사한다.
 - 진료를 받는 당시의 병색, 표정, 자세, 복장 등
- 필요할 경우, “하지 말아야 할 상황”에 대해 기술할 수 있다.
 - 예시: 이경 검사가 필요한 사례에서 “귀걸이를 하지 말 것”을 기술
- 표정은 현재의 감정 상태 및 걱정, 통증을 반영하여야 한다.
 - 통증이 심한 경우, 병이 오래되어 지친 경우, 감정적으로 특별한 표현이 필요한 경우에는 그에 어울리는 표정을 묘사한다.
 - 필요할 경우에는 간단한 화장이나 분장을 통해 드러나도록 해주면 되는데, 특별히 하얗게, 붉게 혹은 검게 피부색을 바꿀 필요가 있다면 여기에 명시한다.
 - (×) 매우 고통스러워하고, 의사의 질문에 다소 신경질적인 태도를 보인다.
 - (○) 힘들어서 찡그린 표정을 하고 있으며, 높고 날카로운 어조로 짧게 대답한다.
- 자세는 일반적으로 그냥 의자에 앉아 있는 것으로 하면 되나, 필요할 경우 환자의 특징적인 자세도 구체적으로 기술한다.
 - 특정 부위의 불편함을 호소하는 환자의 경우 그 불편함을 경감시킬 수 있는 자세를 취하게 할 수 있다. 예시: 급성 담낭염 - 측와위로 누워 있음
 - (×) 수개월간 지속된 혈변으로 인해 피로해있는 모습이다.
 - (○) 얼굴은 누르끼끼하고 입술은 말랐다. 의자에 힘없이 구부정한 자세로 앉아 있다.
- 복장은 사례의 상황과 전체적인 진료의 흐름을 고려하여 기술한다.
 - 신체진찰을 평가하기에 좋은 복장으로 설정하거나 회피해야 할 상황을 명시한다.
 - 예시: 신체진찰이 복잡한 환자의 경우 - 딱 끼는 복장은 피하고 되도록 헐렁하고 간단한 옷차림을 기술한다.
 - 예시: 새벽에 아파서 병원에 온 환자의 경우 - 화장도 안 하고, 옷도 대충 입은 상태를 기술한다.
 - (×) 편한 옷을 입고 있으며 잠을 설친 듯한 표정의 만성병색을 띠고 있다.
 - (○) 라운드 티와 면바지를 입고 있으며, 맨발에 슬리퍼를 신었다.

○ 시나리오 전개

- 평가 시간을 전반, 중반, 후반 등 시간대별로 나누어 환자의 심리 상태가 어떻게 변하는지 구체적으로 기술한다.
 - 면담이 진행됨에 따라 정서의 변화가 필요한 경우에는 시기별로 그 변화를 기술한다.
 - 급성질환 같이 전체적으로 시간 경과나 학생의 태도에 따른 정서적인 변화가 크게 나타나지 않는다면 자세히 기록할 필요는 없다.
- 학생의 특별한 질문이나 행동으로 인하여 다음 단계로 넘어간다면 이를 명시해야 한다.
- 필요할 경우, 면담 전체를 관통하는 일관된 정서와 환자의 상태를 기술할 수 있다.
 - 예시: 의기소침해 있다, 확신에 차 있다, 화가 났다, 두려워한다, 조용히 진정되어 있다
- 필요할 경우, 학생의 진료태도에 따른 감정의 변화를 기술할 수 있다.
 - 예시: 큰 병이 있을까를 걱정하던 환자가 우려가 해소되면서 정서의 변화
 - 예시: 응시자로부터 자식의 백혈병 소식을 들은 후에 감정이나 행동의 변화

○ 현병력

- 표준화환자가 이해하기 쉽도록 기술하며 암기하기 쉽도록 배열한다.
 - 번호나 글머리를 붙여 단문이나 구절로 기술한다.
 - 시간 순서대로 기술한다.
 - 시간대, 증상, 병력 등을 숫자를 제시하며 구체적으로 제시한다.
- 응시자의 첫 질문에 대해서는 모든 표준화환자가 의미상 똑같이 말할 수 있도록 명확히 기술한다.
 - 응시자가 '상황지침'을 읽고 들어오므로 첫 질문을 개방형이나 폐쇄형 중에서 어느 형태로 하더라도 표준화환자는 이에 모두 답할 수 있는 준비를 할 수 있도록 기술한다.
 - 예시: 폐쇄형 질문 - "어지러워서 오셨나요?" 답변 - "예. 너무 어지러워요."
 - 예시: 개방형 질문 - "어디가 불편하세요?" 답변 - "어지러워서요"
- 현 주소가 언제^{onset time and duration} 어떻게^{mode of onset} 시작하여 어떤 경과를 거쳐 지금에 이르렀는지 기술한다.
 - 만성 질환일 경우, 상당한 시일 동안 불편했으나 특별히 오늘 병원에 오게 된 이유가 있을 경우 이를 기술한다.

○ 산부인과력

○ 과거력

- 복용하는 약물이나 치료나 검사에 대해서는 구체적으로 시기와 방법, 현 상태 등을 자세히 기술한다.

- 사례의 문제와 크게 관계가 없어도, 표준화환자가 시나리오의 환자를 이해하는데 도움이 되므로 과거 병력, 복용 약물 등은 모두 기술한다.
 - 사례의 문제와 크게 관련이 없다면, 일부러 복잡하게 만들 필요 없이 간단하게 만들거나, 없는 것으로 기술한다.
- 평소 : 주 증상 외에 평소에 환자가 불편해 하는 사항이 있으면 기술한다.
- 특별한 병에 걸렸던 사실이 있으면, 언제 어떤 병에 걸려서 어떻게 치료를 받았고 현재는 어떤 상태인지 기술한다.
- 약물 복용 : 병의원 처방약, 비처방약(OTC), 한약 모두 언제부터 왜 무엇을 먹고 있는지 기술한다.
- 예시: 고혈압약, 당뇨약, 간단한 진통제 등

○ 가족력

- 가족별로 나이, 직업, 건강상태 등을 구체적으로 기술한다.

■ 표준화환자 시나리오 예시

- 인적 사항 -					
성별	남	나이	29	이름	김희원
키	176	몸무게	67	직업	회사원
경제적 수준	중	학력 수준	대학원졸	장소	외래
- 사례 요약 -					
<p>나는 4년 전부터 어지러움 증상이 나타나기 시작하였습니다. 어지러움 증상은 1시간 정도 지속됩니다. 나는 검사를 받아봐야겠다는 생각에 병원에 찾아왔습니다.</p>					
- 성격 및 감정 상태 -					
<p>○ 평소 성격</p>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- 성격은 예민한 편이지만 건강상태에 대한 걱정을 많이 하는 편이어서, 몸이 약간 좋지 않은 정도에는 대수롭지 않게 반응해왔음 <p>○ 현재 감정 상태</p>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- 처음에는 증상이 심하지 않아서 크게 신경 쓰지 않았음 - 최근 들어 증상이 점점 심해져서 현재는 생활에 많은 지장을 줄 정도이며, 이로 인해 신경이 많이 쓰이고 있는 상태임 - 일을 할 때에도 자신감이나 적극성을 많이 잃어버린 상태임 - 많은 사람들과 어울리다가도 갑자기 증상이 나타날 때가 있어 모임 같은 자리에 나서는 것이 부담이 됨 <p>○ 지금 상황</p>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- 인근 가정의학과 의원에서 진료 받았으나 호전되지 않아서 래원 하였음 <p>○ 지금 가장 걱정되는 것</p>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- 병이 많이 진행되어 완치의 시기를 놓친 상태일까봐 두려움 <p>○ 지금 기대하는 것</p>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- 쉽게 치료되어 이전의 생활을 되찾을 수 있었으면 좋겠음 					

- 표정과 자세 및 복장 -

○ 표정

- 약간 긴장된 모습의 걱정하는 표정

○ 자세

- 힘 없이 늘어진 자세로, 환자 의자에 앉아 있음

○ 복장

- 간편하지만 정돈된 복장을 하도록 함
- 신체진찰에 방해가 되는 달라붙는 옷이나 치마는 피하도록 함
- 과도한 악세사리는 피하도록 함

- 시나리오 전개 -

○ 초기

- 힘 없는 목소리이지만 답변은 느리지 않게 합니다.

○ 중기

- 대화가 진행 될수록 의사의 질문에 관심을 가지기 시작하고 진료에 열심히 참여합니다.

○ 후기

- 의사의 설명에 귀를 기울이고, 병에 대한 이해를 위해 노력하는 모습을 보입니다.

- 현병력 -

○ 4년 전부터 어지럼증 증상이 있었음

- 1년 전부터 왼쪽으로 주변이 빙글빙글 도는 증상이 심해짐
- 주변이 빙글빙글 도는 증상의 지속시간은 1시간 정도이며 왼쪽 귀의 청력소실, 이명(귀에서 소리가 나는 증상), 이충만감(귀속이 꽉 차있는 느낌) 증상이 동반됨
- 어지러울 때에는 속이 메스껍고, 구역질 증상이 동반됨 (실제 토하기도 함)

- 과거력 -

○ 평소 : 특이사항 없음

○ 약물복용 : 감기약, 소화제 등 일반약 가끔 복용

○ 질환 : 해당사항 없음

○ 알레르기 : 해당사항 없음

○ 수술 : 해당사항 없음

○ 입원 : 해당사항 없음

- 가족력 -

- 가족, 친척 중에 특별한 질환이 있는 사람이 없음
- 결혼 상태
- 아버지 : 65세
- 어머니 : 62세
- 누나 : 39세, 건강함
- 형 : 37세, 건강함
- 아들 : 1세, 건강함

- 사회력 -

- 결혼 : (+) 부인 회사원
- 부부관계 : 좋음
- 성관계 : 별무이상
- 흡연 : (-)
- 음주 : (-)
- 커피 : 하루 2-3잔
- 식사 습관
 - 규칙적, 전반적으로 밥맛이 없고 소화가 잘 안됨. 특히 밀가루 음식은 소화가 잘 안됨
- 직업 : 회사원
- 운동 : 잘 안함
- 취미 : 없음
- 스트레스
 - 일이 현재 몸 상태에 비해 힘들다고 느끼나, 크게 스트레스 받고 있지는 않음. 머리가 좀 무거운 편
- 수면 : 잠을 많이 자는 편임에도 불구하고, 항상 피곤한 느낌임

□ 병력청취 예상문답

- 의사의 질문 -	- 환자의 답변 -
안녕하세요?(<u>인사</u>) 학생 의사 000입니다(<u>신분과 이름 소개</u>). 환자분 성함과 생년월일을 말씀해 주시겠어요? (<u>환자확인</u>)	네 안녕하세요. <u>이름은 김희원이구요,</u> <u>생년월일은 1991년 8월 8일입니다.</u>
제가 지금부터 김희원님께 몇 가지 여쭙고 진찰을 하려고 하는데(<u>면담목적</u>), 괜찮으시겠어요?(<u>면담동의</u>)	네 괜찮습니다.
지금 기분은 어떠신가요? (<u>친밀감 형성</u>)	좀 걱정됩니다.
어디가 불편하세요? (<u>주 증상 확인</u>)	어지럽습니다.
어떻게 어지러우신지 더 자세히 말씀해보세요. (<u>촉진</u>)	<u>왼쪽으로 빙글빙글 도는 듯한 어지러운 증상이</u> <u>오랫동안 없어지지 않고 지속되는 것 같아</u> <u>서 신경이 쓰입니다.</u>
언제부터 어지러우셨어요? (<u>명료화</u>)	<u>4년 정도 됐습니다.</u>
언제 어지러움 증상이 심해지세요? (<u>명료화</u>)	아무 때나 자주 증상이 나타납니다.
어지럼증의 지속시간은 어떻게습니까?	약 1시간 정도 지속됩니다.
<u>머리를 다치거나 머리에 특별한 병을 앓은 적이</u> <u>있으세요?</u>	<u>아니요, 없습니다.</u>
움직이면 증상이 심해지시나요?	특별히 그렇지는 않습니다.
눈을 뜨거나 감을 때 증상이 심해지나요?	특별히 그렇지는 않습니다.
<u>머리는 어떠세요?</u>	<u>가끔 아픈데요, 보통 머리가 무겁고 몽롱합니다.</u>
<u>귀와 관련된 증상이 있으신가요?</u>	<u>간혹 귀가 울리고, 청력이 떨어지고, 귀가</u> <u>뽕뽕한 느낌이 듭니다.</u>
잠은 잘 주무세요?	잠이 너무 많이 옵니다.
요즘 컨디션은 어떠세요?	몸이 전반적으로 무겁습니다.
<u>밥맛은 어떠세요?</u>	<u>밥맛이 별로 없습니다.</u>
<u>소화는 잘 되세요?</u>	<u>어지러운 증상이 있을 때는 소화가 잘 안되고</u> <u>속이 울렁거리고 심할 때는 구토까지 합니다.</u>
<u>가슴부분이 불편하지는 않으세요?</u>	<u>가슴이 답답합니다.</u>

- 의사의 질문 -	- 환자의 답변 -
다른 병은 없으세요? (예) 고혈압, 당뇨병, 심장질환, 내분비질환 등 어지럼증을 일으킬 수 있는 질환)	<u>네, 없습니다.</u>
가족이나 친척 분들 중에 비슷한 증상을 호소하는 분이 계신가요?	<u>아니요, 없습니다.</u>

- 그 외에 훈련 받지 않았거나 잘 모르는 증상에 대한 질문은 아니거나 ‘잘 모르겠다’, ‘잘 생각나지 않는다’ 라고 답변하면 됩니다.
- 밑줄 친 부분은 체크리스트 항목이므로 학생의사가 물어볼 경우에만 답변하십시오.

□ 신체진찰

항목	- 신체진찰 방법 -	- 나의 반응 -
이경 검사	① 앉은 자세 ② 귀의 이개를 ‘후상방’으로 잡아 당기며 검사함 ③ 검사 도중 심한 통증을 유발하지는 않음	- 자세는 학생이 요구할 때만 변경한다 - 어느 정도 깊숙이 이경이 들어오면 통증이 약간 있는 것처럼 말한다 - 검사가 끝난 후 ‘이상 없음’이라고 적힌 카드를 건네준다.
소뇌 신경 학적 검사	① 환자에게 오른쪽 검지로 의사의 검지와 환자의 코 사이를 반복하여 여러 번 왔다갔다 움직여보라고 함 ② 마루 위를 걸어갔다가 다시 돌아서 오도록 함 ③ 눈을 감은 상태에서 다리를 함께 모아 서 있게 함	- 모든 자세 변화는 학생이 요구할 때만 하도록 한다. - 모든 검사 동작을 정상적으로 충실히 이행한다.
맥진 · 설진 · 복진	① 환자의 양 손목에서 진맥을 실시함 ② 환자에게 혀를 내밀도록 한 다음 시진을 실시함 ③ 환자를 침대에 눕힌 후 상의를 위로 올리도록 한 상태에서 손으로 복부를 눌러 진찰함	- 모든 자세 변화는 학생이 요구할 때만 하도록 한다. - 복진 시 상복부를 누르면 통증을 호소한다.

- 꼭 해야 할 질문 -
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○ 신체진찰이 끝나면 바로 "어떤가요?"라고 묻는다. ○ 신체진찰 결과를 들은 후 "그래요? 그럼 왜 아픈 거죠? 앞으로 어떻게 해요?" 등으로 묻는다. ○ 추가적인 검사를 해야 한다고 하면 "꼭 검사해야 하나요?"

- 돌발상황에 대한 대처 -
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○ "잘 모르겠습니다", "잘 생각나지 않는데요", "특별히 문제는 없습니다"라고 답변한다.

□ 환자 교육

응시자와 표준화환자 간 예상되는 환자교육(예시)	
환자교육 항목	- 의사의 답변 -
추정 진단	김희원님의 현재 증상과 이학적 검사 등으로 가장 유력하게 추정되는 진단명은 메니에르병입니다.
비슷한 통증을 야기할 수 있는 다른 질병 (감별진단)	메이에르병 외에도 비슷하게 ~~ 등을 의심해 볼 수 있습니다.
증상 원인 설명	이러한 어지럼 증상은 주로 ~~생기게 됩니다.
진단에 필요한 검사 설명	우선 검사를 시행해볼 수 있고, 더 자세한 검사로는 ~~ 검사를 시행하여 확진을 내릴 수 있습니다.
향후 진료과정 및 치료계획	메니에르병으로 확진이 될 경우 ~~등의 보존적 치료를 진행하게 되며, 보존적 치료에 반응하지 않고 증상이 지속되면 ~~ 등이 치료도 고려해야 합니다. 한방에서는 변증에 따라 침 치료, 뜸 치료, 한약 치료, 약침 치료 등을 이용하여 치료를 합니다.
증상을 줄일 수 있는 운동법, 생활습관 교육	염분 섭취를 제한하는 것이 가장 중요하며, 술이나 커피, 담배, 스트레스를 회피하고 충분한 수면을 취하는 등 생활습관 변화를 주는 것이 도움이 된다. 유발 원인을 회피함으로써 어지럼증 발작 및 메니에르 병의 진행을 예방하는 데에 도움이 될 수 있다.